

90년대 이후 도시가계 피복비 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

Changes in th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디자인학전공
조교수 이 미 영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Yo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level and trends in household clothing expenditure in Korea. Raw data sets produ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were used to support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analyses.

The clothing expenditures decreased severely and quick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late 1997 through 1998, then increased slowly after the economic crisis until 2003, only to slightly decrease again in 2004. The ratio of clothing expenditure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 decreased from 8.03% in 1991 to 5.11% in 2004. This decrease in relative clothing expenditure was greater in the lower income group than in the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were unique and differed from other household expenditures. Although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ffected Korean consumers' clothing expenditur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showed a m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change from 1991 to 2004,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such expenditure resulting from the concurrent increase in educational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related expenditures. Clothing expenditure was shown to be luxurious through cross-sectional analysis, but necessary through time-series analysis.

주제어(Key Words): 피복비 지출(clothing expenditure), 지출 패턴(expenditure pattern), 소비지출탄력성 (consumption expenditure elasticity)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Lee,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Tel: 82-32-860-8137 Fax: 82-32-865-8130
E-mail: mylee@inha.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3-C00188).

1. 서론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소비 지출은 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초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정수진, 이은영, 1997)나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기간에는 감소를 겪은 것으로(지혜경, 이은영, 1999; 이미영, 2005)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기간 중에 소비자들의 급격한 피복비 지출 감소는 의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의류 시장의 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한국의류산업협회, 1998).

90년대 이후 피복비 지출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영향이다. 지혜경과 이은영(1999), 그리고 이미영(2005)은 모두 외환위기로 인하여 피복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서 1998년의 피복비지출을 시계열 분석한 지혜경과 이은영(1999, p.752)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인 1996년부터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환위기 기간 동안 피복비 지출 감소가 심화되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피복비 지출 감소가 시작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96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살펴본 이미영(2005)의 연구에서도 외환위기 기간에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피복비 지출은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수준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다른 소비비목과는 달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피복비만의 독특한 지출 패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90년대의 피복비 지출 패턴 변화를 지적한 선행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①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피복비 지출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이 사라진 이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②피복비 지출 감소 현상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로부터 90년대 이후 2004년까지의 피복비 지출 패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피복비 지출 감소의 주원인을 통신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로 파악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사교육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계내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자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2000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명목 가치로 1982년의 19배(실질 가치로는 6배), 1990년의 3배(실질가치로는 1.7배)로 급속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이성림, 2002).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8만 7,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으며,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4a). 한편, 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과 휴대폰은 가계의 통신비 지출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계 구성원들의 휴대폰 구입이나, 가정의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증가로, 1990년에 월 9,300여원에 불과하던 통신비 지출은 2004년에는 약 144,0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수, 2005).

피복비는 사치재로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다른 소비가 필요할 경우 피복비 소비를 줄이는 대체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지혜경, 이은영, 1999). 따라서 90년대 중반 이후의 피복비 지출 감소는 단순히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의 감소나 심리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며, 통신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 지출 비목의 등장이나, 교육비와 같이 급속히 늘어난 가계 지출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90년대 이후의 피복비 지출 패턴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97년말 IMF 외환위기 및 통신비와 교육비 등 타비목의 소비 지출 증대가 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피복비 지출 감소 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피복비 지출 패턴 변화가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계지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1) 소득 변화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라고 하며,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라고 한다. 정상재 중에서 소득 증가율에 비하여 수요 증가율이 작으면 필수재라고 하며, 소득 증가율에 비하여 수요 증가율이 크면 사치재라고 한다. 즉 해당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재, 0과 1 사이면 필수재, 1보다 크면 사치재로 분류한다. 사치재는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에서 지출 비중이 높으며,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지출 변화가 크다. 이에 비하여 필수재는 소득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서 지출 비중이 높고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지출 변화가 작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동일 재화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열등재 혹은 정상재가 되기도 하며, 필수재 혹은 사치재가 되기도 한다¹⁾. 예를 들면, 밥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정상재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

는 열등재가 될 수 있다. 의료인 경우는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필수재이지만 상위 소득 수준에서는 사치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의류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수재 혹은 사치재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의류는 일차적으로는 '의식주'의 구성요소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 생필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을 장식하고 드러내기 위한 '패션'으로서의 의류는 사치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류의 속성(생필품 대 사치품) 중에 어느 것이 더 강조되는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생필품으로서의 속성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일정 소득 수준 이상 단계에서는 사치재로서의 속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소득 변화에 따른 피복비 지출 특성을 분석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복은 소득 증가에 따른 의생활 소비의 고급화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사치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현, 최현자, 2002; 양세정 1991; 유두련, 1991). 김정현과 최현자(2002)의 연구에서 피복 및 신발의 소득 탄력성은 10대 소비 비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이러한 피복비는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나 다른 소비가 필요할 경우 피복비의 소비를 줄이는 대체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혜경, 이은영, 1999).

이러한 소득 변화에 따른 피복비 지출 특성 - 소득 증가에 대한 사치재로서의 성격 및 타비목 소비 증가에 따른 대체재로서의 성격 - 은 본 연구의 주제인 90년대 이후 피복비 지출의 구조적 변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에 관한 연구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인들로는 소득, 가구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피복비 지출은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광희, 배미경, 1997), 가족원의 수가 많을수록(김영숙, 왕인숙, 1989; 박광희, 배미경, 1997; Park & Widdow, 2001),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김영숙, 왕인숙, 1989),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하인 경우(Park & Widdow, 2001),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김영숙, 왕인숙, 1989), 맞벌이 가계인 경우(양세정, 1997, 199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와 비슷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Dardis, Derrick, & Lehfeld, 1981; Norum, 1989), 소득이 높을수록(Dardis, et al., 1981; Norum, 1989),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Norum, 1989),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DeWeese & Norton, 1991) 가계의 피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많은 연구가 교육수준이 높고(Park & Widdow, 2001; Dardis, et al., 1981; Norum, 1989),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피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밝혔으나(김영숙, 왕인숙, 1989; Norum, 1989), 박광희와 배미경(1997)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피복비 지출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고, 교육 수준별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의 가구주의 가계보다는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가계의 피복비 지출이 더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도별 피복비 지출 행태에 관한 연구

1965년부터 1992년 사이의 피복비 지출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정수진과 이은영(1997)에 따르면, 소비자 피복비 지출은 사회, 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다가 1980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그 후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도시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화로 인한 피복비 지출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곽인숙, 송영숙, 김경애, 1999; 소비자보호원, 1998; 소연경, 2000; 이미영, 2005; 이종성, 1998; 정인숙, 송요숙, 김경애, 1999; 지혜경, 이은영, 1999).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외환 위기라는 급격한 경기 변화가 피복비에 큰 영향을 미쳐 가계의 피복비 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979-1998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지혜경과 이은영(1999)은 피복비 소비 지출은 총소비지출 보다 경기변화에 더 민감하고, 경기변동 중에서도 호황보다는 불황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아 경기 호황기에 피복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 보다 경기 불황기에 피복소비지출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지혜경과 이은영(1999)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피복비 지출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지만, 그 이전인 1996년부터 가계의 피복비 지출이 감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 중의 피복비 지출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출 규모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감소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연경, 2000).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다른 지출 비목들

1) 뿐만 아니라 소비품목을 대분류 할 때의 특성과 개별 품목의 특성이 다른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식료품은 앵겔의 법칙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대표적인 필수재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별 식료품목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보리밥은 열등재일 수 있으며, 캐비어는 사치재일 수 있다.

과 비교해 볼 때, 피복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지출 감소의 폭이나 의지가 다른 비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인숙 외 2인(1999)은 외환위기 이후 외식비와 피복구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성(1998)은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감소시키고자 하는 비목이 외식비, 피복구입비, 에너지비용, 문화레저비라고 보고하였다. 소비자보호원(1998)의 외환위기 전후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81.3%)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생활비를 줄였으며, 감소시킨 생활비는 잡비, 외식비, 식료품비, 피복비의 순으로 밝혀졌다.

외환 위기 전후의 피복비 지출 변화를 살펴본 이미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 위기 직후 불황기의 피복비 지출 감소는 소득이나 총소비 지출 감소보다 더 심했던 반면에, 2000년 회복기의 증가 수준은 소득이나 총소비 지출의 증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비목별로는 소득 증감에 따른 지출의 증감 정도는 외의가 가장 심하였으며, 내의가 소득 증감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외환위기 직후 지출이 대폭 감소한 후 회복기에도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피복비만의 독특한 지출 패턴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 90년대 이후 교육비와 통신비 지출 증가에 관한 연구

앞에서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인적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피복비는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나 다른 소비가 필요할 경우 피복비의 소비를 줄이는 대체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지혜경, 이은영, 1999), 다른 지출비목의 증감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육비와 통신비를 들 수 있다(통계청, 2004b). 이승신(2002)은 연구 표본의 70% 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수입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기타 가계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김인숙, 여정성, 1996; 정영숙, 1999).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비목의 지출이 억제하고 있었으며(김인숙, 여정성, 1996),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경우 가계에서는 식료품비는 줄이지 않지만 피복비나 여가활동비의 소비를 줄여 사교육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1999). 통신비 지출의 경우는 다른 소비비목과 비교해 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6.1%로 식료품, 교육, 교통 비목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신민수, 2005). 연구에 따르면 도시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1994년 이후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이 크게 하락하는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어, 90년대 중반 이후 통신비는 필수재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오성동, 최종일,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와 통신비와 같은 최근 증가한 비목의 지출과 피복비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피복비의 대체재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피복비 지출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1991-2004 기간 동안 전체 도시가계 소비자 및 상·중·하의 세 소득계층별로 다음 연구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피복비 지출규모(절대액, 가계소비지출 중의 비중)의 변화 행태는 어떠한가, 이는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통신비, 교육비 등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 변화 행태와는 어떻게 다른가?

둘째, 이를 통하여 어떠한 구조적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90년대의 피복비 지출 변화 패턴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① 피복비 지출 패턴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 ② 외환위기는 피복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다.
- ③ 외환위기는 피복비 감소 추세에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피복비는 일정한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하여 피복비 감소 추세는 「외환위기 직전 감소 시작 →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감소 → 외환위기 회복기의 약간 증가 → 회복 이후 다시 감소」의 패턴을 겪었을 것이다.

위의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이러한 연구자의 예측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가를 살펴 보며, 이를 통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1991-2004년 기간 동안 격년으로 개인별 자료(micro data)인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통계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1963년 이후 전국의 도시 거주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을 조사한다. 비목별 지

출은 피조사원의 가계부 기장 방식을 이용하고,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자료는 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약 5,200개 표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월별 자료가 수집되므로 연간 자료에는 한 가구의 12회에 걸친 소득 및 소비 지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²⁾. 소비지출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피복 및 신발은 다시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 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등의 하위 비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위 비목은 보다 구체적인 상품 비목으로 세분되어 자료가 제공된다. 도시가계 조사 자료는 표본이 전국 규모이고, 가계부 기입방식을 따른 조사로 기억에 의존하여 비목별 지출 액수를 기입하는 조사에 비해 자료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는 매년 조사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 다년간에 걸친 시계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 관한 가장 상세한 조사 자료로서, 소비자 지출 행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비도시가구도 포함하여 조사되었으나,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2003년과 2004년의 자료 중에서 도시가계의 경우만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없는 가구는 제외되었으며, 소득 및 소비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적용하여 2004년도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14년간 57,543 가구로 매년 약 4,000여 가구가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3. 분석 방법

피복비 지출 패턴 변화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피복비 지출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가계들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소득 변화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득 계층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이 필요하다³⁾. 반면에 경기 변동의 영향이나 새로운 소비품목의 등장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1991~2004년의 피복비 지출 행태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시계열적) 및 소득계층별(횡단면적)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 ① 피복비의 절대적 및 상대적(가계 소득 및 소비 중의 피복비 비중) 지출 변화⁴⁾
- ② 피복비와 다른 비목(식비, 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 변화 비교

소득계층별 피복비 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누어 상위 20%를 상위층, 중위 20%를 중위층, 하위 20%를 하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개별 가계 자료에 대한 횡단면적인 OLS 회귀분석을 통해 피복비 및 다른 주요 소비 비목의 지출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4.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을 소득계층별로 총지출 및 피복비 지출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1991~2004 기간 동안 매년 각 소득 계층별 표본의 소득, 소비, 피복비 지출비를 200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환산한 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31만원이고, 총 소비액은 약 169만원, 피복비 지출액은 약 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의 1991~2004년의 월 평균 소득은 2004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101만원이며, 피복비 지출은 월 평균 59,000원이었다. 상위 20%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약 425만원이고 피복비로는 매월 약 1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평균(표준편차)

비 목	전체 (n=57,543)	하위20% (n=11,501)	중위 20% (n=11,509)	상위 20% (n=11,514)
소득(원)	2,313,631 (1,595,222)	1,009,341 (409,850.2)	1,057,726 (681,026.8)	4,246,613 (2,196,498)
총소비(원)	1,686,593 (966,460.2)	971,625 (442,179.2)	1,578,118 (618,577.2)	2,679,809 (1,282,549)
피복비(원)	111,751 (110,439.1)	59,056 (56,835.3)	103,162 (84,328.8)	189,611 (166,027.2)
가족수(명)	3.58 (1.08)	3.08 (.99)	3.63 (1.00)	3.98 (1.15)
가구주 연령(세)	39.72 (9.96)	39.61 (12.17)	38.43 (8.99)	42.82 (9.01)

주) 1) 1991~2004 기간 평균값임.

2) 소득, 총소비, 피복비는 2004년 불변가격 기준임.

2) 이는 원칙이며, 실제로는 12개월 미만의 자료만 조사된 가구가 많다.

3) 어떤 재화의 소득탄력성은 횡단면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고, 시계열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시계열 자료에 의한 경우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에 따른 가격효과도 포함된다.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횡단면적인 자료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4)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 소비지출액, 특정 비목지출액, 특정 비목의 소비지출에서의 지출 비중 등을 다른 주요 비목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소연경, 2000; 신민수, 2005; 이미영, 2005; 이성림, 2002; 정수진, 이은영, 1997; 지혜경, 이은영, 1999).

IV. 연구 결과

1. 1991-2004 기간의 도시 가계 피복비 지출 변화 양상

1) 도시가계의 총소비와 피복비 지출 변화 패턴: 시계열적분석

〈표 2〉에는 1991-2004 기간 동안의 피복비 지출액의 절대 규모 변화와 총소비지출 중에서의 피복비 지출액 비중인 상대 규모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총소비지출과 피복비 절대 규모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두 2004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이 표를 보면 1991-2004 기간 동안 총소비지출액의 증가 정도에 비하여 피복비 지출액의 증가 정도는 상당히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소비지출액 중의 피복비 비중은 1991년 8.03%에서 2004년 5.11%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복비 지출 비중의 감소 패턴은 1991-2004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열에 제시된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1997년과 1998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그 이후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보이다가, 2004년에 와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복

〈표 2〉 연도별 총소비와 피복비 지출액의 변화

연 도	총소비지출 ¹⁾ (천원)	피복비 (천원)	피복비비중 ²⁾ (%)	비중 변화율(%) ³⁾
1991	1,272	103	8.03	-
1992	1,387	110	7.81	-2.72
1993	1,466	113	7.72	-1.11
1994	1,532	120	7.77	0.66
1995	1,634	131	8.00	2.91
1996	1,767	137	7.63	-4.59
1997	1,774	122	6.82	-10.61
1998	1,481	84	5.48	-19.67
1999	1,650	94	5.58	1.86
2000	1,811	107	5.65	1.15
2001	1,893	110	5.66	0.25
2002	1,924	111	5.60	-1.12
2003	1,953	113	5.55	-0.75
2004	1,999	106	5.11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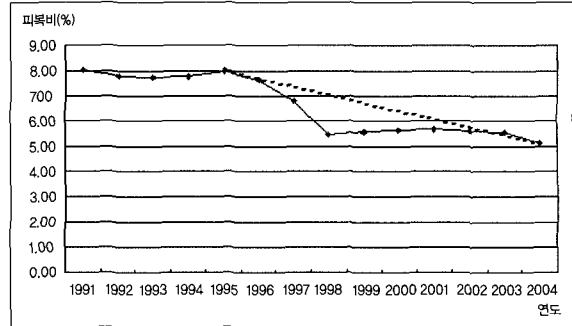
주) 1) 총소비지출, 피복비는 2004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이는 개별가구별로 피복비비중을 구한 후 이를 평균한 것

$$\left(\frac{\sum \text{피복비}}{\sum \text{총소비지출}} \right) \cdot 100$$
임. 따라서 가구별로 각각 총소비지출액 평

균(둘째열 제시)과 피복비 평균(세째열 제시)을 구한 후, 피복비 평균을 총소비지출액 평균으로 나누어서 구한 값($\frac{\sum \text{피복비}}{\sum \text{총소비지출}}$)

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함.

3) '비중 변화율'은 피복비 비중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그림 1〉 전체 피복비 비중의 연도별 변화 행태

비 지출의 변화 패턴은 〈그림 1〉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림 1〉은 1996-1998 기간 동안 피복비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후,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피복비 지출의 변화 패턴은 연구문제에서 언급된 가설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가설의 주장들을 받아들인다면, 만일 IMF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피복비 지출패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경우 피복비 지출액은 〈그림 1〉의 점선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일정한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즉 외환위기라는 교란요인 이처럼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나타났을 가상의(counterfactual) 변화패턴과 실제의 변화패턴을 대조시켜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그림에서 가상의 변화 패턴인 점선을 탄력성 있는 줄이라고 하면, IMF 외환위기는 이 줄을 외환위기가 가장 심했던 1998년도에 대하여 아래로 끌어내린 역할을 해서 실선과 같은 실제의 변화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림 1〉과 같이 피복비 지출의 변화패턴이 연구가설의 주장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연구가설이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가설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복비 지출 패턴이 〈그림 1〉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변화 패턴이 연구가설의 주장과 같은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된 피복비 지출액의 변화 패턴을 상·중·하의 소득 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다른 비목의 지출 증가가 피복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나 외환위기가 피복비 지출에 미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득 계층별 도시 가계 피복비 지출 변화 패턴:
횡단면적분석

소득계층별 피복비 지출 패턴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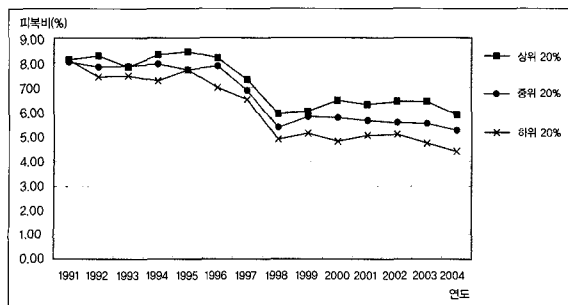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2>를 보면, 소득계층별 피복비 지출의 연도별 변화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표 2>와 <그림 1>에서 제시한 전체 소득계층에 대한 것과는 동일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즉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시작 →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감소 → 외환위기 회복기의 약간의 증가 → 회복 이후 다시 감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계층별 피복비 지출 변화 패턴은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피복비 지출의 감소 경향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표 3> 1991-2004 기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 변화 (단위: %)

연도	하위20%	중위20%	상위20%
1991	8.10	8.04	8.09
1992	7.41	7.84	8.28
1993	7.46	7.89	7.85
1994	7.26	7.96	8.32
1995	7.71	7.70	8.43
1996	6.96	7.85	8.21
1997	6.50	6.88	7.29
1998	4.88	5.35	5.94
1999	5.15	5.80	6.02
2000	4.81	5.76	6.47
2001	5.05	5.66	6.29
2002	5.09	5.58	6.41
2003	4.73	5.52	6.42
2004	4.39	5.24	5.89
변화율 ¹⁾	-45.80	-34.83	-27.19

주) 1) '변화율'은 1991년 대비 2004년의 변화율(%)을 나타냄.



<그림 2> 1991-2004 기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 변화

<표 2>의 마지막 행에 제시된 1991-2004 기간의 피복비 지출 변화율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상위계층은 27.2% 감소한데 비하여 중위계층은 34.8%, 하위계층은 45.8%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04년에는 하위계층 4.39%, 중위계층 5.24%, 상위계층 5.89%로 상위소득의 피복비 지출 비중이 하위소득 계층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기간에 소비지출 비목 중에서 피복비, 요양오락비와 같은 선택적 소비지출 비목에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삭감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소연경(200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90년대 이후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 비중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피복비가 일종의 사치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사치재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한다. 따라서 피복비가 사치재라면 상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비중이 하위소득 계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 설명된다⁵⁾. 그러나 이 경우는 동일 연도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피복비 지출 비중이 증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체 가구의 피복비 지출 비중도 증가해야 한다. 이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총소비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피복비가 정말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재화라면,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이전에 비하여 지출비중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표 1> 및 <표 2>는 전체가구는 물론이며, 소득계층별로 세분한 경우에도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피복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비중이 하위소득계층보다 높으며, 이러한 경향이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확대된다는 것에 대하여 피복비의 사치재적 성격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즉, 피복비는 일종의 사치재적 성격(총 소비가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종단면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횡단면적으로만, 그것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5) 사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표 3>에 제시된 것은 소득이 아닌 소비에서의 비중이다. 그런데 소득 중의 소비 비중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상위소득 계층의 소비 중 피복비 비중이 하위소득 계층보다 높다고 해서, 소득 중 피복비 비중도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피복비가 사치재인지 여부를 따지자면 총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아닌 소득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사치재'라고 명확하게 지칭하는 대신에 '일종의 사치재적 성격'이라고 표현하였다. 본문의 논의는 사치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데 있으므로 소득 대신 소비를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설명은 피복비 지출의 축소를 초래한 통신비 등 새로운 지출수요가 필수재(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앞에서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통신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의 지출이 피복비 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즉 소비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비록 통신비 지출이 새롭게 창출된 수요로서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지만 필수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의 증가로 인한 피복비 지출의 축소 압력은 고소득계층보다는 저소득계층에서 더욱 심할 것이다. 이 경우 피복비 지출의 중단면적 축소 경향 및 횡단면적 확대경향은 통신비와 같은 타재화의 지출 증가에 의하여 파생된(derived) 지출 패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통신비가 90년대 중반 이후 필수재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는 기존 연구(오성동, 최종일, 2004)에 의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3) 피복비와 다른 비목의 지출 패턴 비교

앞에서 피복비 지출은 9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외환위기가 교란요인의 역할을 했음을 논했다. 그리고 피복비 지출은 중단면적 축소 및 횡단면적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패턴이 피복비에 고유한 패턴일까? 아니면 다른 소비 비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앞에서 90년대 중반이후 피복비의 지출 패턴 변화는 통신비 등 다른 비목의 지출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통신비의 지출패턴은 어떤 모습일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1991-2004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

비목별 지출패턴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는 가로 길이의 제약으로 인하여 14년 치 중에서 짝수 연도의 통계만 제시하였다.

<표 4>에는 11개 소비비목에 대한 연도별 총소비에서의 지출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모두 11개 비목 중에서 1992년에 비하여 2004년의 지출비중이 증가한 비목이 4개이며, 지출 비중이 감소한 비목이 7개이다. 식료품, 주거, 가사용품, 피복비 등 생활필수비목의 소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교육, 교통, 통신 등 선택 소비비목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출 증가율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순이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에는 다른 소비 비목들이 역신장 하였던 1997-8년 외환위기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91-2004 기간 중 통신비는 200% 이상 증가하여 다른 비목들에 비하여 증가폭이 월등하게 크다. 그리고 이러한 큰 폭의 증가가 주로 199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복비는 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지출 패턴이 뚜렷하게 다른데 비하여 식비나 주거비는 대체로 일정하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용품비 지출은 9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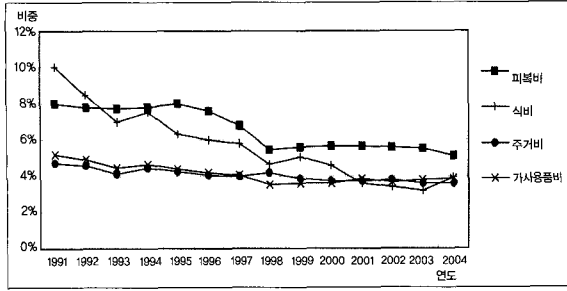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비목별 지출 패턴의 차이는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림 3>은 지출 감소율이 큰 4개 비목에 대한 것이며, <그림 4>는 지출증가율이 높은 3개 비목에 대한 것이다. <그림 4>의 피복비 지출 패턴과의 비교를 위하여, 피복비도 포함하였다. <그림 3>에서 식비의 경우 다른 비목들에 비하여 비중의 절대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교의 편이를 위하여 [실제값-25] 값을 제시하였

<표 4> 소비비목별 지출 비중의 연도별 변화(%)

비 목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변화율
피복비	7.81	7.77	7.63	5.48	5.65	5.60	5.11	-34.57
식비	33.44	32.53	30.98	29.68	29.62	28.41	28.93	-13.49
주거비 ¹⁾	4.62	4.47	4.08	4.19	3.71	3.82	3.62	-21.65
광열비	4.81	4.84	5.14	6.69	6.14	5.73	5.29	9.98
가사용품비	4.92	4.63	4.23	3.56	3.57	3.69	3.89	-20.93
의료비 ²⁾	5.21	4.71	4.60	4.41	4.30	4.31	4.56	-12.48
교양오락비	4.47	4.72	4.55	3.95	4.85	4.38	4.35	-2.68
교육비	7.04	7.14	8.34	8.62	9.16	9.54	9.65	37.07
교통비	6.31	8.14	8.96	10.68	10.59	10.01	10.62	68.30
통신비	2.19	2.27	2.51	3.64	5.00	6.53	7.15	226.48
기타소비	19.19	18.77	18.97	19.10	17.43	17.98	16.83	-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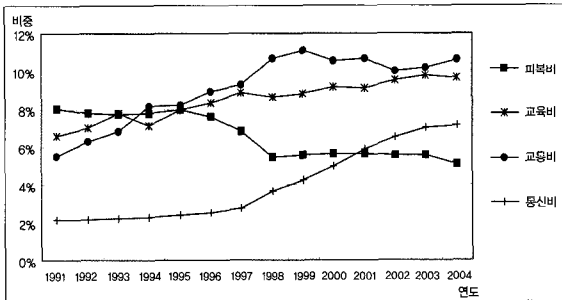
주: 1) 주거비의 경우는 결측치가 많음.

2)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커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표 3>을 보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라 비록 총의료비(공공+민간) 지출 비중은 증가하더라도, 민간의 지출 비중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 소비비목별 지출 비중의 연도별 변화(%): 지출 감소율이 큰 비목들¹⁾

주: 1) 식비의 경우 다른 비목들과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비중-25] 한 값을 제시하였음.



〈그림 4〉 소비비목별 지출 비중의 연도별 변화(%): 지출 증가율이 큰 비목들

다. 우리의 목적은 연도별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모든 연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고정값을 차감한 후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⁶⁾.

〈그림 3〉을 보면 피복비 지출비중의 감소 패턴은 다른 세 비목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복비 지출 패턴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시작 →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감소 → 외환위기 회복기의 약간 증가 → 회복 이후 다시 감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식비와 주거비는 대체로 전 기간을 통해 일정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사용품비는 90년대 초부터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비와 주거비는 필수재에 속하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더라도 지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을 것이다. 가사용품비는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감소하다가 IMF 외환위기 때 급속히 감소한 후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피복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지출비중 감소가 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피복비와는 다른 지출패턴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피복비의 지출 패턴은 다른 비목들과는 비교되는 피복비만의 독특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다

음은 지출 증가율이 큰 비목들의 지출 변화 양상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비는 90년대 동안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0년대 초반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통신비는 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통신비와 피복비 지출패턴의 비교이다. 통신비는 9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피복비는 이와 대조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외환위기가 피복비 감소 추세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에서 제시한 〈그림 1〉의 점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외환 위기가 없었다면 피복비의 감소 추세는 통신비의 증가추세와 거의 대칭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상에서 논의한 대로 〈표 4〉, 〈그림 3〉, 〈그림 4〉를 통하여 피복비의 지출패턴은 다른 비목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며, 피복비의 감소 추세와 통신비의 증가 추세는 대체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비목들의 지출패턴은 전체 가구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가구에 대한 것 이외에 〈표 3〉과 〈그림 2〉에서 분석한 것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하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소비비목들의 지출패턴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는 〈표 4〉에서 지출감소율이 가장 컸던 세 품목인 피복비, 식비, 주거비와 지출증가율이 가장 컸던 세 품목인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의 1991-2004 기간 중 짝수년도에 대한 지출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상중하 소득계층별로 6개 비목의 연도별 지출 변화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피복비의 계층별 지출패턴과 통신비의 계층별 지출패턴의 비교이다. 피복비의 경우,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소득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계층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통신비는 이와 대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계층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피복비+통신비] 비중은 연도별로는 약간씩 증가하면서, 소득계층별로는 유사한 값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의 경

6) 이는 어떤 변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해당 변수의 절대 수준이 시계열적 변동 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클 경우,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정 크기를 절사한 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7) 다만 피복비의 감소율에 비하여 통신비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표 5〉 소득 계층별 주요 소비 품목 지출 비중의 연도별 변화(%)

상위20% 계층							
비 목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피복비	8.28	8.32	8.21	5.94	6.47	6.41	5.89
식 비	28.88	28.20	26.93	25.36	24.74	24.29	24.98
주거비	3.32	2.99	2.85	3.19	2.79	3.09	2.53
교육비	8.53	8.59	9.15	11.23	11.20	10.87	11.99
교통비	8.33	10.40	10.69	11.68	11.61	10.71	11.57
통신비	1.57	1.76	1.95	2.95	4.20	5.49	5.58
중위20% 계층							
비 목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피복비	7.84	7.96	7.85	5.35	5.76	5.58	5.24
식 비	33.86	32.92	31.50	30.01	29.88	28.79	29.33
주거비	4.01	4.00	3.88	3.58	3.47	3.20	3.03
교육비	6.86	7.00	8.21	8.72	9.09	9.99	9.73
교통비	5.99	8.01	9.20	10.98	10.63	10.49	10.87
통신비	2.17	2.29	2.54	3.67	5.09	6.83	7.38
하위 20% 계층							
비 목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피복비	7.41	7.26	6.96	4.88	4.81	5.09	4.39
식 비	36.41	36.06	34.69	32.84	33.97	32.29	32.53
주거비	7.28	6.68	6.50	6.98	5.55	5.30	5.69
교육비	5.52	5.83	7.06	6.33	6.75	7.24	6.26
교통비	4.92	6.05	6.36	8.47	8.72	8.26	9.12
통신비	2.88	2.78	2.96	4.34	5.56	7.19	8.33

우 [피복비+통신비]의 값은 상위계층 9.9%, 중위계층10.0%, 하위계층 10.3%이다. 그리고 1996년의 [피복비+통신비]의 값은 상위계층 10.1%, 중위계층10.4%, 하위계층 10%이며, 2004년의 [피복비+통신비]의 값은 상위계층 11.5%, 중위계층12.6%, 하위계층 12.7%이다. 이상과 같은 소득계층별 피복비와 통신비의 지출패턴은, 피복비의 지출패턴 변화가 통신비로 대표되는 다른 비목 지출변화의 압박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앞에서의 주장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표와 그래프로 제시된 기술통계치에 의하여 본 피복비지출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절에는 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3. 피복비 지출의 구조적 변화: 소비비목별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표 6〉에는 소비지출의 감소율과 증가율이 가장 큰 네 개 비목인 피복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⁸⁾. 이는 14년간의 개인별 자료를 pooling 하여 OLS로 회귀분석한 것이다.

〈표 6〉의 회귀계수값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총소비지출과 연도 변수에 대한 계수값이다. 총소비지출과 종속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총소비지출의 계수값은 해당 소비비목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총소비가 증가할 수록 해당 비목의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다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연도 변수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 때의 탄력성은 주로 횡단면적인 소득계층별 비교에서의 탄력성을 보여 준다. 한편 연도변수는 시계열적인 지출 비중의 증감 경향을 보여 준다. 이 값이 +이면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면 감소함을 의미한다.

먼저 연도변수를 보면 피복비와 식비의 계수값은 -이며, 통신비와 교통비의 계수값은 +이다. 그리고 피복비의 절대값이 식비보다 커서 피복비의 감소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며, 통신비의 절대값이 교통비보다 커서 교통비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도 변수 계수값의 부호와 절대값은 앞에서 기술통계에 의한 추세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총소비지출의 계수값을 보면 피복비와 교통비는 1보다 크며, 식비와 통신비는 1보다 작다. 따라서 피복비와 교통비는 횡단면적인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식비와 통신비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총소비지출 변수 계수값의 크기 역시 앞에서 이루어진 기술통계에 의한 추세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피복비	식 비	통신비	교통비
총소비지출	1.178***	0.654***	0.560***	1.324***
가구주연령	-0.008***	0.003***	-0.005***	-0.008***
10~20대 자녀수	0.046***	-0.001	0.075***	0.039***
연도	-0.037***	-0.004***	0.141***	0.061***
상수항	68.73***	10.87***	-279.22***	-128.70***
R ²	0.19	0.59	0.55	0.48
N	56,668	57,543	57,023	57,339

*** p<.001

주: 1) 종속변수인 각 비목별 소비지출과 독립변수인 총소비지출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자연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지출액이 0인 경우는 결측치로 나타남.

8) 소비지출 감소율은 피복비가 가장 크고 다음이 주거비이며, 식비가 세 번째이다. 그런데 주거비의 경우는 결측값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대신 식비를 분석하였다.

4. 피복비 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

소득 혹은 총소비와 개별 비목의 지출과의 관계는 앞에서 분석한 식비나 교통비의 경우와 같이, 소득(소비) 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재의 경우에는 횡단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소비)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중도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소비)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피복비와 통신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피복비는 시계열적으로는 지출비중이 감소하지만, 횡단면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비는 시계열적으로는 지출비중이 증가하지만, 횡단면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9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피복비와 통신비의 지출변화는 통상적인 소득효과만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며,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통신비는 본질적으로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휴대전화의 보급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시계열적인 지출비중은 증가하였지만,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횡단면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복비의 경우는, 통신비 등 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창출된 지출수요에 따라 다른 비목의 지출이 감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치재이면서 대체재의 성격을 갖는 피복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경향에 대해 IMF 외환위기가 교란요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복비 지출은 90년대 중반 이후,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통신비와 같은 새롭게 창출된 지출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간의 피복비 지출 패턴의 변화를 도시가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2004 기간 동안 총소비지출액의 증가 정도에 비하여 피복비 지출액의 증가 정도는 상당히 작은 편으로, 피복비의 감소추세는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시작 →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감소 → 외환위기 회복기의 약간 증가 → 회복 이후 다시 감소」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피복비 지출의 감소 경향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른 지출 비목과 비교한 결과, 피복비가 90년대 중

반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통신비는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두 지출 비목을 소득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피복비의 경우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소득 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신비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4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적인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일수록 지출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주요 비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나타냈다. 즉 피복비는 시계열적으로 지출비중이 감소하지만 횡단면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통신비는 시계열적으로는 지출비중이 증가하지만 횡단면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복비 지출 패턴은 90년대 중반 이후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새롭게 창출된 지출수요(예: 통신비)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주장이 옳다면 향후의 피복비 지출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될 것인가, 혹은 증가될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논의로부터 유추한다면 감소 속도가 완화되거나 혹은 좀 더 감소한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통신비 등 새로운 지출수요가 이제는 포화점에 가까이 왔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며,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고, 2000-2002년의 비약적인 증가 이후 통신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둔화 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영수, 2004). 따라서 새로운 수요창출로 인한 피복비 지출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복비는 사치재적 성격과 필수재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비목의 지출비중 증가로 나머지 비목들의 지출이 제약을 받을 경우 사치재적인 성격을 갖는 비목의 지출이 우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피복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데는 이러한 이유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피복비는 필수재적인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사치재적인 부분이 지출이 충분히 감소한 뒤에는 더 이상의 비중감소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피복비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다. 그

런데 피복비의 사치재 혹은 필수재적인 성격은 개별 의류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미영(2005)에 따르면 외의는 보다 사치재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내의는 보다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피복비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 지출패턴 변화를 분석한다면, 전체 피복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변화는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소득 혹은 총소비의 변화뿐만 아니라 피복비 자체의 가격 변화도 피복비 지출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1991-2004 기간의 피복류 물가상승률은 다른 비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4a). 물론 피복류 물가상승률이 다른 비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총소비 중 피복비 지출비중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변화의 영향을 포함할 수 있다면 피복비 지출패턴 변화의 모습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인숙, 송영숙,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김영숙, 왕인숙(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7-149.
- 김정현, 최현자(2002). 소득 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269-292.
- 박광희, 배미경(1997). 지위일치, 불일치 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8.
- 소비자보호원(1998).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신민수(2005). 통신비 지출 현황 분석 및 복지 문화 통신.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54-67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82
- 양세정(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2.
- 오성동, 최종일(2004). 정보통신비지출에 관한 실증연구 - 습관형성 및 가격, 소득 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29, 25-40.
- 유두련(1991).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연구, 2(2), 41-54.
- 이미영(2005). 경제위기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 분석. 한국류학회지, 29(2), 199-209.
- 이성림(2002).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영수(2004). 신규통신서비스 수요 촉발 어렵다. LG주간경제, 24, 36-40.
- 이종성(1998). IMF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연구문제, 21, 55-74.
- 정수진, 이은영(1997). 우리나라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결정요인에 대한 종적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5), 889-902.
- 정영숙(1996).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0(4), 61-73.
- 정인숙, 송요숙,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IMF 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지혜경, 이은영(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5), 745-756.
- 통계청(2004a). 2004 사회통계조사결과. 통계청
- 통계청(2004b). 2004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통계청.
- 한국의류산업협회(1998). '98년 의류 산업의 전망. 한국의류산업협회.
- Dardis, R., Derrick, F., & Leh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12-222.
- DeWeese, G., & Norton, M. I. T. (1991). Impact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on individual household member expenditures for cloth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5(2), 235-257.
- Norum, P. S. (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39.
- Park, S., & Widdows, R. (2001).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s by categor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1), 1-10.

(2006년 5월 3일 접수, 2006년 6월 14일 채택)